

구조조정으로 흑자 경영만이 살길

지 금 우리나라 양계업 중에서 부채가 없는 분야가 있는가?

양계인들이 알고 있듯이 각종 정책자금을 사용했고 국내 금융권 금리 보다 낮은 리스자금을 사용하여 시설투자를 하였다. 또한 일반 금융대출을 받아 농가경영자금으로 활용

하였다. 많은 자금을 투자했으니 농가 경쟁력이 생길 것이라는 시각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종계·부화업자들이 늘 하는 소리는 '96년부터 불황이 시작되어 끝이 보이질 않는다는 것이다. 종계·부화업자가 불황이라고 하는 이유는 병아리가격이 생산비 이하

□ 취재/김종준 기자

에서 얼마 동안 거래되었는가 살펴보면 쉽게 해답을 찾을 수 있을 수 있다. 불황에 찾아온 IMF시대 개막은 대출금리 상승, 환율상승, 생산비상승을 초래했고 정책자금 상환까지 겹쳐 농가경영이 부실화 되고 있다.

1. 병아리가격 저가 원인

병아리 가격이 생산비 이하에서 거래되는 기간이 길어지는 원인은 병아리 생산량이 입추량 보다 많을 경우와 육계소비량 감소 등으로 함축할 수 있다.

'98년 1월부터 7월까지 종계 사료량은 '97년 같은 기간에 비하여 약 20%인 3만1천톤이 줄었다.



표1. 농가부채현황

(단위 : 원)

농가	자금	정부정책자금	일반조달자금	리스료	합 계
1		4억	3억	3억5천만	10억5천만
2		-	-	4억	4억
3		-	5억	-	5억
4		2억6천만	-	-	2억6천만
5		4천4백만	10억	-	10억4천만4백만
6		2억	8억	4억	14억
7		35억	6억	4억5천만	45억5천만
8		14억5천만	10억	5천만	45억
합계		78억5천4백만	42억	16억5천만	137억4백만

* 일반조달자금에는 금융대출과 사채를 포함한다.
* 정부정책자금 : 시설, 경영자금 포함.

중계사료 생산량이 줄어든 만큼 중계사육수가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중계사육수 감소로 '98년말까지 육용실용계 생산잠재력이 예년에 비하여 5천만수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감소된 병아리 입식량을 육계사료 생산실적으로 추정한다면 금년 1월부터 7월말까지 육계사료생산량이 예년과 같은 기간에 비하여 25% 감소하여 병아리수로는 6천8백만수가 줄어든 셈이다.

이와 같이 중계사육수와 병아리 입식량 모두 줄었지만 병아리 생산량이 병아리 입식량을 상회하는 수준이라서 병아리 가격이 300원 이상 유지되는 기간은 짧았다.

다른 측면에서 병아리 저가 원인을 진단한다면 병아리 입식량은 육계가격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육계가격이 1,100원(kg당) 이상에서 형성되는 기간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병아리 가격이 저가로 거래된 것은 병아리 입식자금이 없는 육계농가와 경기전망이 불투명하여 입식을 미루는 농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육계소비가 정체되어 호전되지 않는 것도 병아리가격 저가 원인으로 지적되는데 육계소비량(후라이드치킨)은 월간양계 7월호의 설문조사에서 밝혔듯이 33%로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감소된 육계소비량 만큼 병아리 생산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하지 못하였다.

병아리가격의 변동폭은 보합세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하루 사이에 100~200원이상 벌어질 때가 있었고, 병아리가격 하락시기에는 고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의 차이가 100원이상 생겼다.

병아리 가격이 저가일 때 판매량이 증가하고 병아리가격이 고가일 때 판매량이 감소하여 농가이익 발생이 미미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농가경영 실태

중계·부화업이 IMF 전에 경영상태가 양호한 것은 아니었지만 농장 경영에 위기를 느낄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나 IMF 구제금융을 받고 난 후에 금리상승과 환율상승, 소비부진, 생산비 상승으로 농장시설 증·개축과 농장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 농장은 각종 자금 상환과 이자부담이 커져서 농가경제 부실이 가속화되었다.

중계·부화장에서 시설 증·개축 및 농장 운영에 사용한 자금 종류는 정부정책자금, 일반금융대출, 리스, 사채 등

이다.

차입금 규모를 8개 농장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농가별로는 최소 2억6천만원에서 최고 45억5천만에 이르고 있고, 8개 업체 전체 농가차입금 규모는 137억원으로 조사되었다.

차입금 중 정부정책자금 78억5천만원 중 시설자금은 3년거치 7년 상환에 연리 5%가 대부분이므로 비교적

농가부담은 덜하지만 일반조달자금 42억원중에는 금융권 대출 연금리가 IMF전에 13.5%였던 것이 20%로 높아졌다가 현재는 17.5%로 하향 조정되었지만 여전히 농가에서 부담하기에는 높은 금리이다.

또한 농가가 갚아야할 리스료는 16억5천만원으로 집계되었다.

표2. 리스로 산출시 참고사항

항 목	참 고 사 항	비 고
결제회폐	계약 당시 결제 화폐가 외화, 원화에 따라 결제금액이 변동됨.	거래리스회사마다 차이가 있다.
계약기간	48~60개월 사이	
리스적용 시점	B/L(선화증권) 도착시	
리스료 상환	매월 계약 당시 환율을 기준으로 하되 환율이나 리보금리 변동시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환율 정산과 금리 정산을 한다.	
연체료	30~40(%)	
원회부대 비용	시설 리스의 경우 선적에 따른 보험료, 관세료, L/C 오픈비 등이 시설설치비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다 두배 가까이 원금이 늘어난 셈이다.

리스를 사용한 농장주에 의하면 리보금리(세계표준금리) 변동과 리스상환이 연체될 경우 연체료가 30~40%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국내금융권 17.5%의 연금리보다 리스료의 연금리가 오히려 높다는 것이다.

조사 농가중 차입금 사용 형태를 보면 정부자금, 일반대출, 리스료, 사채

등을 모두 사용한 농가가 62%에 이르고 있는데 비교적 자금 규모가 큰 정부자금보다는 금리 비용이 많은 일반금융대출과 리스, 사채로 인한 농가부실이 심화되어 자금규모가 큰 정부자금은 상환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답변한 농가가 많았다.

이런 어려움을 타결하기 위

표3. 연도별 환율변동 현황

(단위 : 원)

연도	월일											
	1/3	2/5	3/5	4/3	5/1	6/3	7/3	8/5	9/1	10/3	11/4	12/1
'96	778	778	779	780	778	785	806	814	818	821	828	833
'96/'97	91	89	89	86	86	87	90	90	89	89	85	69
'97	846	872	870	897	885	893	889	885	907	916	965	1,199
'97/'97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98	1,790	1,608	1,605	1,449	1,338	1,392	1,358	1,333	1,372	*	*	*
'98/'97	200	184	189	161	149	158	152	148	151	*	*	*

* 기준 환율은 '97년도 각월에 표시된 일일 환율이 해당된다.
* '96/'97, '98/'97은 '97년대비 '96년과 '98년의 환율변동지수를 나타낸다.
(지수산출방법='96/'97×100, '98/'97×100)

리스료는 환율상승전에 연금리가 6.5%로 국내금융권의 대출금리 보다 7% 낮았기 때문에 많은 농장에서 사용하였다.

그러나 리스료는 환율 800원대에서 계약한 농가의 경우 환율이 2,000원대까지 상승하였다가 현재 1,300원대 하락하였지만 리스료가 계약 당시보



하여 일부 농가에서는 부동산을 담보로 운영자금을 확보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해당 은행이 BIS(자기자본비율)을 조절한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부하고 있어 자금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보다 힘들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이 현금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15~36%의 높은 연금리를 감수하면서 어음을 할인하고 있으므로 이중삼중으로 농가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3. 농가경영회복 방안

종계·부화업체가 부채 상환의 어려움과 불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선 농가차원에서 농장경영상태를 재점검

해야 한다.

농장의 이익과 손실액을 정확하게 산출하여 앞으로 부채를 자력으로 줄여갈 수 있는지 경영진단을 하여 손실이 많을 경우 사업전환을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만약 부채를 탕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예를들면 병아리 판로를 확보하고 병아리 판매가를 자체 농장의 생산비보다 높게 책정하여 이익을 남겨야 한다.

단 개별농가의 생산비는 다른 농가의 생산비보다 적어야 한다. 결국 가격경쟁력과 품질경쟁력을 제고하여 병아리 판매시장 확보를 견고히

하자는 것이다.

두 번째로 최근에 정부에서 정부자금 상환을 유예하여 농가 부채를 탕감한다는 정책목표를 실현하고 있다. 종계·부화업자에 의하면 정부에서 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는 농가를 무차별 선정하기 보다는 선별적 지원방식으로 선택한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고무적이라 보고 있다.

그러나 경쟁력 있는 농가 선별기준을 농가가 가진 담보능력보다는 농장주의 사업능력 평가에 비중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며, 만약 담보능력에 치중한다면 탁월한 사업능력을 가진 양계업자가 제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부채 상환 유예 대상은 경쟁력이 있는 종계·부화장만 선택하는 것이 종계·부화업계 경영회복에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거시적으로는 향후 3년간은 국가경제가 회복하기 어렵다는 여론에 비추어 본다면 양계산물 소비는 당분간 둔화될 것이므로 생산자와 유통업자가 소비촉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으로 본다. **양계**